

폭설에 가격 폭등 ... 배추 2000t·무 6500t 방출

정부, 비축물량 출하 등 농산물 수급안정 나서

농협 계약재배물량 대파·당근 등도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최근 한파, 폭설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배추, 무, 대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폭설로 산지 수확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상 항공 운항 중단 등 운송여건이 악화되면서 시장 공급 물량이 감소해 주

요 채소류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기상 회복과 함께 수확작업도 정상화돼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남, 진도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배추, 대파는 폭설로 수확 작업이 어려워 이번주까지 출하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 당근, 브로콜리, 쪽파 등 대부분 제주 지역에서 공급되는 품목은 중단됐던 해상 항공

운송이 지난 25일 오후부터 재개되면서 점차 공급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산 저장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양파, 마늘은 일부 지역의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나 시장공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온이 회복되고, 눈이 정리돼 배추, 무, 대파, 당근 등 주요 채소류의 출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시장 공급을 확대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인 배추 2000t, 무 6500t을 수

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인 배추 3만6571t, 무 4만6185t, 대파 2728t, 당근 1만894t 및 생산안정제(배추 1만t) 물량도 탄력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냉해 피해 등 생육모니터링 및 산지가격, 시장출하량 등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수급대책을 통해 겨울철 채소류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임금체불 사상 최대

근로자 30만명 고통 받았다

체불 총액 1조2993억 ... 4년새 20% 늘어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 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었다.

2011년 27만8000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2년 28만4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26만6000

여명으로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30만명에 육박했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

에서 지난해에는 1조2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530명과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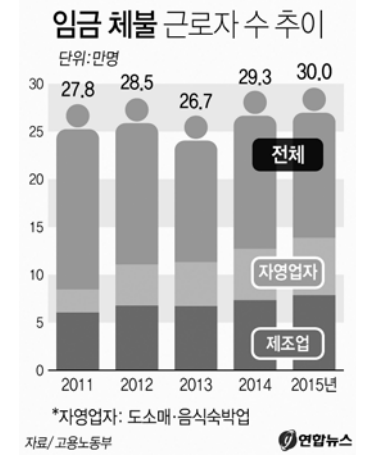
이어 건설업(6만5573명·2487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6만140명·1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3만1814명·1285억원), 운수창고·통신업(1만8495명·107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수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는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8530명으로 3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임금체불액의 증가율은 더 높았다. 2972억원에서 4749억원으로 무려 59.8% 급증했다.

장기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물량이 현실화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6만14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수용품 저렴하게 팔아요”

전남농협, 직거래장터 11곳 운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명절 성수기 맞아 전남 농축산물 가격안정 및 우수 농산물 구매기회 제공을 위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광주·전남지역 11곳에서 개설 운영한다.

광주 동구청 옆 KT정보센터 광장을 비롯해 무안, 해남, 구례, 여수 등 모두 11곳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농협전남지역본부 설맞이 직거래장터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동구청 뒤편 KT광주정보통신센터 광장에서는 설 명절 대표 품목인 “장성사과, 나주배, 세지메론, 순천기위, 화순더덕, 광양밤, 함평한과, 진도수산물”을 비롯한 60여 품목을 최고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우리 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을 배치해 2일부터 3일까지 이들 동안 한우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우스농가 총력 지원

지난 27일 강남경 농협전남지역본부장(사진 오른쪽)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함평군내 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위로하고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농협 제공>

관상류 세들어네모네퍼쉬

전남해수원, 종묘 생산 성공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해포리고기 종묘를 생산한데 이어 지난해 말 흰동가리류인 세들어네모네퍼쉬 종묘 생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들어네모네퍼쉬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지에 분포하는 열대성 관상어류로 크라운피쉬와 같이 국내외 아쿠아리움에서 선호하는 고급 전시 어종이다. 이 어종은 말미잘과 상호군집(공생)해 서식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은 열대 관상어류를 직접 전시하면서 인위적인 환경 조성과 수정란 채집, 산란유도 등 알받이와 부화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는 자리돔류 가운데 노랑자리돔과 흰동가리류, 빅벨리해마 종묘생산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 폭설 피해 농가 저리 자금 지원·대출 이자납입 유예

인력·장비 투입 복구 만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도

농협은 폭설·한파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인력지원 및 재설장비 투입 등 복구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피해지역 전 사무소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농협은 또 피해 농업인에 대해 ▲재해대책 자금 신용보증지원 자금 안내 및 확대 ▲신규 저리자금 우선 지원 ▲기존 대출에 대한 12개

월 이내 이자납입 유예 ▲상환 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해 기한연기,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농작물재해보험금 즉시 지급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 복구 긴급 여신지원은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의 농업인, 주민,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산출에 1.0%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역 농·축협은 조합별로 최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NH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연체이자에 대한 면제, 사고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 농업인들이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범농협 차원의 긴밀한 협조하에 금융당국의 신속복구 지원방안에 적극 동참해 각종 금융지원과 임직원 일손돕기, 재해구호 물품제공 등 총력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가능

아파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됐다.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받고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